

臺灣 ‘外省人’의 역사와 정치적 배경

스테판 콜큐프 (Stephane CORCUFF)
(프랑스 리옹 정치대학 교수)



여기서는 먼저 ‘外省人’이라고 하는 명칭의 역사적 전개, 다층적인 의미를 고찰하면서, 당초에는 하나의 族群을 나타내는 명칭이 아닌 ‘外省人’이라는 말이, 어떻게 하여 하나의 에스닉 그룹을 나타내는 총칭이 되었는가를 살펴려 한다.

먼저 새로운 에스닉 그룹의 기원과 전개를 살피고, 다음으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문학자, 예술가, 학자들의 ‘外省人’에 대한 견해를 검토하면서 이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外省人’이라는 명칭의 기원과 전개

1) 인구통계상의 문제

‘外省人’이라는 말은 1945년9월부터 1955년2월까지¹⁾사이에 臺灣으로 건너온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바다를 건너온 인구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해 전혀 다르게 연구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이 이동인구의 통계를 잡는 일은 커다란 곤란이 있었다. 특히 통계방법의 문제 이외에도 고려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 요소가 있다.

- 1944년-1946년 사이, 臺灣지구에서는 호구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1945년10월부터 1946년9월까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臺灣으로 건너왔는지가 불분명하다.
- 1946년11,12월에 ‘戶口清查設籍登記’ 가 실시되었으나, 이 등기의 자료는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완전한 형태의 조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 1949년, 1950년 사이의 인구 이동 기는, 정치적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 이때의 등기와 조사에는 기술상의 지장이 있었을 것으로 상상된다.
- 蔣介石과 함께 臺灣으로 건너온 군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미혼인 사람은 臺灣省 정부의 ‘戶口清查設籍登記’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²⁾
- 이러한 호적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군인들의 수는 오늘날까지 국방부에 의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는 없다.
- 특히 臺灣 사람들과 결혼한 군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군인의 아내가 된 臺灣 여성의 혼인 후의 호적이 ‘外省人’으로 되었기 때문에, 실제 外省人의 인구를 나타내는 숫자는 더욱 신뢰성을 잃게 되었다.

인구는 또 더러는 또 정치적인 배려로부터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毛澤東에 의해 서 한국전에 보내진 인민해방군 중 일부는 1954년1월에 한국에 투항, 그 후 臺灣으로 보내졌다. 대만 신문국이 출판한 ‘中華民國年鑑’에 의하면, 그 수는 1만4천명이다. 그러나, 2000년1월에 ‘2,28평화기념관’에서 개최된 전람회에서, 필자는 그 수를 1만 명이라고 하는 기록을 발견했으며, 어떤 인구학자는 그것을 7,390명으로 보고 있기도 한다.

1) 1945년10월, 일본정부는 臺灣의 통치권을 포기, 중화민국정부가 통치권을 접수했다. 1955년2월, 상해 남쪽 절강성 沖주의 大陳島의 군인과 민중들이 대규모적인 철수를 한후, 매년 臺灣으로 건너오는 外省人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 했다.

2) 실사의 대상이 된 ‘臺灣성호적통계요람’에서는 군인은 일반인과 달리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인과 결혼한 군인은 배우자의 호적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각각의 기록이 왜 이렇게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숫자의 증가와 정치적 사고와의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 가장 큰 의문은 蔣介石정권과의 우호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의 숫자다. 최대의 우호국인 미국에 대해, 숫자를 늘려 신뢰를 되찾으려 했던 것이다. 한국전쟁 전, 미국은 蔣介石에의지지 계획을 포기했으나,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그것을 변경하여 대륙반공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조건부’ 적인 蔣介石 원조로 전환했다. 즉 늘어난 숫자의 이면에는 정치적인 목적인 숨겨져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필자는 1997년7월18일에 夏功權장군과 면회한 적이 있다. 그는 1945년11월 8일에 융에년웃군과, 장개석의 부관 및 전략고문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1949년 8일에 융0년의 국민당 정부 1945년11월수한 시기에 이동해 온 것은, 합해서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을 포함하여 2억0만 명’이라는 숫자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이 설을 증명할 수 있을 가. 3년 후, 필자는 다시 夏장군을 방문했을 때, 거듭 같은 질문을 했으나, 답은 동일했다.

1969년, 인구학자 李棟明은 그의 한 논문에서 상세한 분석을 했다. 바다를 건너 臺灣으로 건너온 사람들의 수에 대해, 1946년부터 1965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고 호적이 없는 독신 군인들을 포함, 또 그들의 臺灣籍의 아내와 자식들도 포함한 통계에 언급하면서, 인구의 사회증가 통계방법을 사용, 그 수를 전체적으로 90만8,500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단지 ‘그 숫자가 정말로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지금도 수수께끼’라고도 하고 있다.

1946년의 臺灣의 총인구는 609만 명, 1951년은 727만 명,³⁾ 호적이 있는 外省人은 1946년에는 총인구의 0.5%, 1965년에는 13.6%⁴⁾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는 外省人에 시집온 본성인 여성을 계산에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엄청난 증가를 나타내는 비율의 변화를 찾아낼 수 있다. 1990년에 시행된 인구조사의 결과에서는 外省人 인구는 전체인구의 12.7%로 나타나고 있다.

2) ‘外省人’이라는 낡고도 새로운 명칭

‘外省人’, 이 명칭은 국민당정부가 臺灣으로 옮겨오기 이전부터 이미 중국 민간에서는 자주 사용되고 있었다. 예컨대, 각 省市에서 실시된 인구조사에는 ‘本省籍과 外省籍’의 구별도 있었다. 口語상으로는 예부터 ‘外地人’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왔고, ‘바깥에서 와서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을 지칭하고 있었다. 보통, 중국인들은 潮州人, 上海人등과 같이

3) 省政府民政廳의 통계자료

4) 『臺北文獻』九,十期合刊, p.2239

籍貫(본적)을 그 명칭으로 하였다.

1945년, 중국본토에서 臺灣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당시 ‘大陸人’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그때 臺灣은 중국의 새로운 省으로 갓 복귀했기 때문에, 이들 이민은 자연히 臺灣人으로부터 ‘大陸人’으로 불려지고 있었다. 이것은 ‘臺灣人/本土人’과 대응하는 말로 표현되었다. ‘大陸人’은 臺灣 민간에서 아주 일반적인 호칭으로, ‘外省人’이라는 호칭은 당시 어떤 관료적인 색채를 띠우고 있었다. 왜냐하면, 外省人 자신은 ‘外省人’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스로 籍貫의 이름으로, 예컨대 江蘇人, 廣東人 등으로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보듯 필자는 가장 일찍 정식으로 ‘外省人’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陳儀의 정부기관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

外省人이라고 하는 명칭은, 중국본토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臺灣 자체는 하나의 작은 섬이었기 때문에, 섬 밖의 ‘대륙’에서 이사 온 사람들을 지칭해 되었으며, 특히 臺灣人과 그 밖의 외래자, 즉 ‘타자’로서의 대립성을 가지고 사용되어왔던 것이다.

‘外省人’이라는 말이 정식으로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행정상의 요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추가했던 것은, 臺灣이 가진 ‘島國性’과 外省人이 가진 ‘배타성’이라는 성질이다. 1945년 이후, 外省人과 臺灣籍 민중들 사이에 일어난 충돌은 날이 증가, 특히 본성인과 外省人과의 사이에는 ‘타자성-외재성’의 골이 더욱 깊어갔다. 즉 본래 臺灣人은 ‘外省人’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대륙’ 만을 떠올리고, ‘-’ 적인 이미지는 존재치 않았으나, 陳儀가 유도한 신중국정부의 대만상륙 직후의 2.28사건(1947년), 개엄령 등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臺灣人의 外省人에 대한 이미지는 차차 악화, 불만의 감정이 현저하게 생겨났던 것이다. 군대를 총동원한 반란진압 시기로부터 그 후의 임시조항 아래 정착한 臺灣민중들의 ‘外省人’에 대한 이미지는 당시의 그들이 정권, 군대, 경찰에 의해 억압되는 가운데서도 이미 만들어 져 갔던 것이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정치적 사상, 즉 반공을 표방, 중국에의 회복을 호소하는,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 갔다. 臺灣人과는 관계가 없는 정권을 연상시키게 되었다.

‘外省人’이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단지 보통 本省과 他省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순하던 이 말이 현재와 같이 복잡한 의미가 생겨난 과정 그 자체가, 필자의 관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각지에서 건너온 外省人들이란, 서로 각자의 말이 통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낸 것인가, 또 그 해석 방법은 어떤 것인가가 흥미롭다.

3) 새로운 명칭의 너비

일반적으로 말해, 臺灣에 건너온 이민 모두가 군인일 수만은 없고, 또 같은 지역 혹은 같은 省市로부터 건너온 사람들도 아니다. 당연히 정치적인 입장 또한 모두가 독재체제를 지지한 것도 아니다. 공정하게 말하면, 外省人은 모두가 특권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며, 실제로는 대다수가 臺灣의 변두리 지역에 살며, 또 대다수가 중국본토의 시골지역으로부터 건너온 고독한 군인들이며, 퇴역 후에는 가난에 시달리면서 만년을 쓸쓸히 보내고 있다. 당초 그들 모두가 臺灣을 일시적인 피난장소로 보고 있었다. 영화 '바나나 천국'과 같은 사람들은 아니나, 그 대부분 즉 1949년부터 1950년 사이에 臺灣에 건너온 外省人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주목할 만한 것으로, 환경보전 문제 연구로 유명한 馬以工 자신의 경험을 보면, 그 부모는 1946년4월(중국 본토에서 국민당 정권이 몰락하기 전)에 일가를 이끌고 臺灣에 정주할 것을 희망하여 이주했다. 후일, 省籍문제가 초점화하는 2.28사건(1947년)이 일어난 후도, 중국 본토로 되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부모와는 달리, 그 조부모의 경험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1949년, 국공내전에 패한 국민당 군이 臺灣으로 퇴각함에 따른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추방되어 異鄉에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여기서 필자는 두 가지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왜 臺灣人들이, 外省人과 臺灣 사회를 억압한 새로운 정치질서와를 같은 것으로 연결시켰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다.

당초 外省人们的 걸모습만으로는, 누가 蔣介石 정치사상의 지지자인가를 알 수 없었으며, 권력자의 정치적인 행동과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가운데, 그 시정방법을 지지하지 않은 外省人은 도대체 누구인가, 蔣介石정권 하의 臺灣人們에게는 그것을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당시 바다를 건너온 이민들은 臺灣에서 사용하고 있는 福?(인변의)語나 客家語를 말할 수 없었다. 이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은, 그들로부터 臺灣 본토의 특수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했고, 이 지방 사람들과의 생활에 같이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엄밀하게 말하면, 臺灣에 정주한 外省人的 대다수는 이 섬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으며, 당시 대부분의 外省人은, '여행자의 심정'을 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고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말을 기억할 필요는 그렇게 절박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당시 국민당정부는 일치하여 ‘國語推行運動’(국어인 중국어를 추진하는 운동)을 추진, 당초 출신지 언어밖에 말하지 못하는 ?動’ 군인들에게 국어(중국어)를 배우도록 압박하고 있었다. 이압박하실제로는 통치자에 의한 당시의 건국계획?推行단이며, 그에 따라 조치였다. 언어통語推교육 대상은 臺灣人 뿐 아니라, 각지의 방언의 건국계外省人에게 박하에외는 아니었다. 그 목적은 전 국민에 대한 ‘중국의식’의 강화였다. 이렇게 하여 중년이 되어서부터 국어를 배우게 된’ 군인들은 이 땅 사람들과의 교류에 필요한 뿐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더 이상의 여력이 없었다. ?動’ 증언에 의하면, 적지 않은 外省人们이 국어추행운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 밖에, <臺灣, 나의 유일의 조국>의 저자인 外省人 田欣은 ?南語를 배우는 것은 外省人們에게는 실로 대단히 어렵고, 혹여 배우려 한다고 해도 힘이 미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앞에서와 같이, ‘外省人’은 중국 본토의 각지로부터 모여들었기 때문에, 서로들 사이에 의사소통도 곤란했다. 서로 다른 省籍의 각 지역으로부터 모여든 사람들이 그 토지의 언어와 문화를 보전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낸 조직으로 臺灣에는 아직 많은 ‘同鄉會’가 존재하고 있다. 당시 언어상으로 ‘異中求同’의 상태를 강요받고 있었던 外省人們은 동향회 내에서 허락되었던 ‘相異性’의 공간을 발견했던 것이다. 1930년대의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는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저작 <집합적 기억>을 썼다. 그는 이 책에서 중요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사회 내에는 많은 집합이 존재, 많은 기억을 만들어 내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집합의 성원들이 항상적으로 모이고 참가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향회’는 알게 모르게 국민당에 의한 건국정책 속의 언어의 통일을 방해하면서, 外省人 문화의 다원화를 명확히 하면서, 臺灣 사회 내에의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의 환영이 생겨났기 때문에, 臺灣人们은 外省人们을 ‘단일문화’을 가진 族群으로 보기 이르렀다. 즉 역사의 추이 가운데, 당초 다원적인 색채를 띤 사람들이었던 것이, 臺灣人们的 눈에는 자기들과는 다른 별도의 族群(‘外省人’으로 총칭되는)으로 비춰지기에 이르렀다.

外省人们은 당초 다른 省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이며, 일시적으로 이 작은 섬에 모여 있으면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새로운 에스닉 그룹을 형성했다. 만약 역사를 재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外省人은 이러한 결과의 책임을 지고, 어떤 外省人은 이 비극 속에서 동정 받는 피해자가 될 것이리라. 오늘날, 臺湾人们은 자기들은 外省人们的 피해자라고 생각하

고 있으나, 공정하게 보면, 外省人 쪽이 오히려 역사와 20세기의 國共內戰의 피해자라고 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臺灣이 ‘異鄉’을 거쳐, ‘故鄉’이 되었다고 하는 경험은 대단히 복잡하나, 동시에 그 궤도는 명확하다. 臺灣 사회 속에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많은 外省人們은 臺灣人们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2. 민감한 미해결의 문제

1) 일반적인 外省人관

1997년 王效蘭이라는 이가 유창한 프랑스로 나에게 질문했다. “정말 흥미있는 문제이나, 당신은 도대체 왜 이 민감한 문제를 연구하려 했습니까?”라고. 또 나이든 몇몇 전 국민군 병사들도 앙케이트 조사에서는 참고를 위한 여백란에 그들의 감상을 들어봤는데, 그들은 外省人 연구를 하거나, 外省人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필자의 연구는 臺灣의 연구자들에게서까지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다.

1997년 12월, 필자는 또 王效蘭과 外省人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녀는 다시 프랑스어로 “진정 믿겨지지는 않지만, 臺灣에서는, 外省人們이 臺灣이라고 하는 토지에 아이덴티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모두가 동의할 것이지만, 우리들은 충분히 外省人們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며, 外省人們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편견이 존재한다. 첫째의 편견은 外省人們이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外省人們이 臺灣의 정체가 臺灣化하는 것에 반대, 통일을 지지하면서, 臺灣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를 인정치 않고 있다고 믿고 있다.

1994년, 필자가 高雄에서 30세 가량의 청년과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필자에게 ”外省人們은 너무나도 통일을 원하고 있다. 그들에 있어 ‘대륙’에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으나, 이러한 말을 필자는 이미 몇 차례나 듣고 있다. 같은 해 高雄 시장선거에서도, 어떤 이가 ‘중국의 돼지새끼들, 어서빨리 끼져”라고 外省人을 공격하는 것을 우연하게 들었다. 1995년 8월, 臺北의 찻집에서 臺灣 독립 지지자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도, 그가 外省人們을 ‘공산당의 계리라들’로 분류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外省人=統一‘이라는 편견에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에 필자는 놀랐던 것이다.

2000년 1월까지 228평화기념관에서는 外省人們에 관련한 전시가 있었다. 이때까지, 臺灣

에서는 外省人們을 전 臺灣人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구성체 내에 용해되는 것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은 적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미디어가 주목하는 것도 없었다. 이것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外省人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다. 臺灣의 정치가들 중에서, 外省人們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사람은 있으나, 지금까지 外省人们的 '정신세계' 을 충분히 인식한 사람은 없다.

1997년 2월, 당시 부총통 呂秀蓮이 桃園縣長 선거에 출마했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자, 그녀는 至慈湖의 蔣介石公園 묘지에 선거용 피켓을 세우고, 蔣介石은 '新住民의 대표'라고 말했다. 呂의 현명하고 교활한 선거를 의식한 발언에 대해, 外省人們은 솔직하게 이것을 인정치 않고, 이 발언을 험오, 外省人们的 표를 빼앗기 위한 책략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다. 外省人을 '新住民'이라고 부르는 것은, 臺灣의 미래에 대해 대단히 유익한 일이긴 하나, 呂가 蔣介石을 신주민의 대표라고 부른 것은, 그녀가 外省人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스스로를 신주민이라고 생각하는 外省人은 절대로 蔣介石시대 전체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外省人们이 李登輝에 의한 蔣介石에 대한 개인승배를 희색 시키려는 정책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증명되고 있다.⁵⁾

外省人们은 외부로부터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族群이다. 필자가 과거 臺灣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外省人们에게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지요" 고 질문하자, 그들은 "그것은 과거 사건의 중첩으로부터 온 것이다. 外省人们은 臺灣을 국제무대에 내세우려 하지 않으며, 臺灣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外省人은 스스로의 가슴속에 臺灣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2) 문예계에서의 外省人 묘사

臺灣의 예술계는 外省人的 국가아이덴티티 '위기'에 대해서 주목해 왔다. 특히 영화계는 일찍부터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묘사해 왔다. 1980년대에 '臺灣 뉴시네마' 봄이 일어났으나, 외성 출신의 영화감독들은 모두 그때까지의 값싼 영화이미지로부터 벗어나려고 들 열심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영화의 재료로 정치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몇 명의 감독들은 직접 영화 속에서 外省人 문제를 내세웠으며, 그 밖의 많은 감독들도 外省人 문제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밖의 문제로까지 손을 뻗어갔다. 다음은 그 대표적 작품을 소개한다.

5) 『中國研究』16, 秋號(1997), P.115

영화 〈바나나 천국〉(1989)은 고향으로 돌아갈 가망이 없는 중국본토 출신 병사가 정신적 문제로 범죄를 범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붉은 감〉(1996)에서는 고향 중국 본토에 돌아갈 것을 원하고 있는 外省人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나선 후, 臺灣에서 새로운 가정생활을 시작한 모습을 묘사했다. 이 영화의 카메라 워크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깊게 파고드는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있다. 〈소년〉(1983)에서는 外省人과 본성인 두 가지 적을 가진 아이들이 보내는 인생과, 그 생활상의 고통을 묘사, 〈노병의 봄〉(1984)에서는 外省人과 본성인의 결혼생활이 유머러스하게 묘사되고 있다. 1994년의 ‘총통을 뽑는 나의 한 표’에서는 블랙 유모어와 반영웅주의적인 수법을 통해, 臺灣 정계의 고령화와, 정부와 민의간의 낙차의 확대를 묘사했다.

연극에서는 1986년의 〈暗戀桃花源〉이 화제를 불렀다. 남자는 중국본토에서 초연의 사람을 잊지 못하고, 결혼하여 아이가 태어나도 오직 그 연인과의 재회를 원하고 있었다. 실은 그 초연의 상대도 후에 臺灣으로 건너와, 결혼하여 아이를 갖고 있었다. 최후에 그는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것이 가능했으나, 그녀는 자기를 잊고, 과거를 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의와 상심 속에서, 그는 깊게 후회, 그는

결국 오랫동안 같이해온 처와 가족과 지내온 행복한 반생을 선택케 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 연극은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부지부식 간 臺灣에 익숙해지고, 대만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는 外省人们的 모습을 암묵리에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트의 세계에서는, 外省人 제2세대, 梅汀衍의 현대예술작품이 外省人们的 국가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예술가도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 臺灣의 정치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梅는 중화민족주의, 국가아이덴티티, 양안관계, 臺灣의 지위 등의 문제를 그의 창작과 유합시켜갔다. 매는 애매한 수법으로, 양안에 있는 국가에 대한 자신의 아이덴티티에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있으며, 그 자신이 다원화한 국가아이덴티티를 가진 것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梅의 많은 작품에서 필자는 가장 대표적인 다음의 3가지를 예로 들어본다.

첫 번째의 작품은, 1992년의 〈民權主義〉이다. 그는 〈국부사상〉과 〈三民主義〉의 교과서에서 1페이지씩 찢어 날지 않는 비행기를 접는 것으로, 臺灣의 교과서가 많은 정치적인 관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도 도구마가 되고 있음을 비판, 학생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인가를 무리하게 교육시키려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즉 비행기는 ‘삼민주의’의 교실에서 도망치려는 학생들이며,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함으로써 그들의 바람이 이뤄지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삼민주의’ ‘국부사상’은 당시의 교육부가 규정한

필수과목이기에, ‘학생들은 모두 대단히 싫어하고 있었음’^{⑥)}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국부사상’의 교과서를 열심히들 암창 하는 것이다. 교과서에의 내용에서 우리들은 눈물과 곰팡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특히 거기에는 각기 다른 속도의 세 가지의 시계가 인정되고 있었다. 흔적들은 국부사상, 삼민주의는 이미 시대에 뒤진 것을 암시, 세 가지의 시계 가운데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계는 중국이 영구, 불멸, 불후인 것을 나타내고, 정지하여 움직이지 않은 시계는 臺灣이 계엄령 아래서 언론의 자유와 정치개혁에 대해 무기력하였음을 나타내고,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시계는 중국의 근대화의 완만함 혹은 臺灣의 계엄령 기의 영향으로부터의 완만한 이탈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梅의 작품 〈民權主義〉는 왜 이렇게 많은 애매모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계엄령 후의 민주화에 의해, 外省人们的 정치적 특권은 와해된 것일까. 더욱 臺灣의 민주화의 원천은 실은 중화민국이 중국본토에 있었을 때의 孫中山 사상이며, 모든 臺灣人们에 있어 민주화의 원천은 역시 중국본토에서 온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두 번째의 예는 1990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발행의 ‘臺灣省’ 지도를 사용한 것이다. 지도위에는 중국 본토에서 臺灣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열쇠와 자물쇠 꾸러미가 있고, 자물쇠는 對岸으로, ‘南京자물쇠’ 부분은 臺灣전체를 뒤덮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臺灣을 전면적으로 콘트롤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열쇠는 강하게 서로를 연결,兩岸의 긴밀하고 불가결한 관계를 표현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전제, 억압의 형태로 臺灣의 정치적 자유나 발전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南京자물쇠’가 臺灣측에 있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나, 노력을 한다면, 臺灣은 스스로 이 단단한 연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예로부터, 梅가 표현하는 국가 아이덴티티에 다원적인 뉴앙스를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의 예는, 1991년 미국에서 발표된 〈This is Taiwan〉이라고 하는 작품이다. 이것은 동물 가죽을 재료로 한 지도로, 臺灣을 가죽위에 입체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작품은 〈This is Taiwan〉이나, 이 작품은 본질적으로는 臺灣의 주체성과 梅의 臺灣의식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梅는 과거 필자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미국에 있었으나, 많은

⑥) 1997년5월에, 梅汀衍이 필자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해설했을때의 이야기

사람이 'Made in Taiwan' 이라고 표시된 물품에 대해서 느끼는 부정적인 평가에 도대체가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필자에게 'This is Taiwan'에는 '이것이 臺灣이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臺灣의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 보였다. 이것은 臺灣 독립의식을 나타낸 작품일 뿐 아니라, 프랑스의 저명한 화가 르 마그리트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이 화가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작품으로 유명하다. 만약 그의 그림 가운데 파이프가 현실세계에서의 파이프가 아니라고 한다면, 梅가 만든 'This is Taiwan'도 역시 臺灣이 아닐 것이다.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현실이 어떠하든 그것을 상상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다. 臺灣은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臺灣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나타내는 것으로, 臺灣 독립을 낙관시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것은 절대 아니다. 이 그림이나 앞의 두 가지의 작품에는 이 중년의 화가 자신의 국가아이덴티티에 대한 의문이 표현되고 있다. 필자가 梅와 만났을 때, "나는 조금 우왕좌왕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필자에게 고백했으나, 그 자신도 강력한 중국의식을 가진 인물이면서, 1990년대 초에는 臺灣에 아이덴티티를 가진 外省人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치와 예술창작은 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는 臺灣 문학에서의 外省人的 국가 아이덴티티문제를 살피려 한다. 주지하는 것과 같이, 많은 外省人们이 문학창작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국가아이덴티티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고 있다. 臺灣 문학은 필자의 전문은 아니나, 문학 면에서 세 가지 경향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경향은, 1937년, 南寧에서 태어난 白先勇의 작품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1952년부터 1963년까지 台北에서 생활했고, 당시 출판된 일련의 문학잡지에는 外省人을 취급한 그의 단편소설이 게재되고 있다. 이들 소설은 1971년에 <台北人>이란 단행본으로 정리하였다. 白은 이들 단편소설에서 난민들의 정신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白의 작품에 등장하는 外省籍의 인물들은 중국 본토에서 과거 권위를 자랑하던 존재다. 그러나 작중에서는 그와의 전혀 다른 - 방탕하게 생활하고 있거나, 단지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이들과는 달리 - 臺灣에서의 제대로 살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인물상을 그리고 있다.

이야기는 台北의 작은 식당을 열고 있는 인물을 그리고 있다. 특별한 일은 없으나 생활의 걱정도 없는 사람들이, 가끔 이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주인과 옛날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다. 이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과거를 그리워 할 뿐 아니라, 과거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중국 본토에 있을 때의 애정을 계속가지며,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 없는 연인이나 친구를 잊지 못하고, 그녀들의 처우도 알지 못한 체로, 걱정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다. 작품은 이러한 外省人들이 臺灣에 온 이래의 일들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많은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일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적 고난을 묘사해 가고 있다. 이 소설을 읽고 등장인물들의 고뇌에 동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한편 당시의 外省人들이 어떻게 현실을 도피, 가까운 사람들과의 교제도 하지 않고, 상념 속에서만 살면서, 臺灣 땅에 한 발짝도 정착하려 하지 않았음도 이해 될 것이다.

白先勇의 작품에 등장하는 臺灣籍의 인물들은 대개 폭력단이든가, 매춘부나 정신이상자들이다. 그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당시 臺灣의 적나라한 사회상황일 것이다.

白先勇의 작품에 등장하는 臺灣籍의 인물들은 대개 폭력단이든가, 매춘부나 정신이상자들이다. 그가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당시 臺灣의 적나라한 사회상황일 것이다. 그 자신의 인식이나 생각일 것인지, 소설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당시 전반적으로 外省人들이 가지고 있던 臺灣 사회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당초 外省人들은 内와 外라고 하는 방법으로 臺灣의 모든 것에 대해 거리감을 두고, 臺灣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일면을 받아드리려 하지 않았다. 그런 한편에서, 白이 묘사한 外省人, 즉 돈도 권력도 장래의 희망도 없는 外省人들이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이전 중국 본토에서 한 시대를 구축한 스타가수가 臺灣에 온 후로, 더럽고 저속한 나이트 클럽에서 폭력단이나 술에 취해 미소를 피는 삼류 가수로 강등,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마저 없는 상황 등이 그런 것이다.

필자가 선택한 두 번째의 경향의 대표는 白先勇보다 늦은 시기에 활동한 外省人 작가 龍應台의 〈野火集〉이다. 1985년에 출판된 이 책은 龍의 작품을 한책으로 묶은 것으로, 출판 후 수개월에 70여 회의 중세를 거듭한 베스트셀러가 돼, 많은 外省人的 주목을 받았다. 高雄市 태생의 제2세대 外省人 작가인 龍은 당시 臺灣을 인간미 없는 사회로 평가, 거기에 대해 그녀 자신도 추방자로서의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했다.

1996년에 龍은 〈건배, 토마스 만〉을 출판했다. 그것은 李登輝가 말한 ‘臺灣인으로서의 비애’에 대해서 비평한 문장이 있다. 기기서 그녀는 고향이 없는 外省人的 비애라고 하는

대립점을 나타내 보였다. 필자는 龍에게는 外省人 제2세대가 가진 국가아이덴티티의 다원화로부터 오는 복잡한 생각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李登輝가 일본인과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그녀는 그가 外省人을 아직 臺灣人의 일부분으로 보지 않음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특히 그녀는 李登輝의 제왕학인 “다양한 인민은 다양한 총통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한다. 이때 그녀는 자기가 같은 臺灣人인 것은 인정치 않고, 그것도 臺灣 인민인 것을 대단히 ‘고통’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국가아이덴티티의 ‘다원화’에 대해서는 자주 ‘모순’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1990년대 많은 外省人們이 李登輝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外省人们的 관점에서 본 것으로, 外省人的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에 있으면서, 중국 본토와 臺灣의 분단에 의해, 양안의 인민은 정식적인 교류를 가지지 못해, 이것이 外省人们에게 비애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것과 대조적으로 外省人们은 지금도 자기의 뿐만 아니라 ‘대륙’에 있다고 생각, 臺灣에서의 생활이 어려우면, ‘대륙’으로 되돌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왜 스스로를 애처롭고 고뇌에 차있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으면서, 外省人们은 臺灣에 편입되려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들은 통일인가 독립인가, 臺灣의식인가 중국의식인가 하는 논쟁으로 밖에 보지 않는 입장에서 뛰어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인데도 말이다.

臺灣의 外省人은 되돌아가는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이미 臺灣에 수십년간 생활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미 그들을 ‘臺灣同胞’로 보고 있다. 外省人们은 臺湾에서 국가아이덴티티의 변화에 대해서 심각한 체험을 해 왔다. 外省人们은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인가. 1990년대 후반 이후, 臺灣은 천천히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하고 있으나, 外省人们은 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필자의 의문은 그들은 도대체 만회할 여지가 있을가 없을가 하는 것이다. 만약 없다고 하면, 外省人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 다원화한 국가아이덴티티를 찾아내, 이해하고, 적응을 도우는 한권의 책이 아닐까. 그것은 그들이 아무런 불안도 없기 전체 臺灣人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도우는 것으로, 外省人们的 마음속 깊이 있는 상흔을 열어 제치는 책이지 않을가.

제3의 경향은 앞의 경향과 정반대다. 중앙연구원 歷史語言研究所의 盧建榮은 1999년에 〈分裂的國族認同〉이라는 서적을 출판했다. 이 책은 새로운 세대의 外省人작가들을 분석, 그 가운데 2명의 작가, 朱天心과 苦?을 앞의 경향과는 반대의 예로 들고 있다. 이 두 사람의 작품은 자신들의 臺灣에서의 성장과정과 臺灣의 通婚 상황과 臺灣의 장래 - 즉 독립 가능성

-을 묘사한 것이다. 그들은 특히 外省人們의 세대교대를 상징하고 있다. 이 이전의 두 사람의 작가와 대비해 보면, 白先勇은 당초 중국 본토 태생(1937년)으로 후에 가족과 臺灣으로 건너왔으며, 龍應太는 臺灣 태생(1951년)이나, 당시 그녀의 가족은 湖南에서 막 이민 온 처지였다. 그에게는 臺灣이라고 하는 토지는 단순한 통과점에 지나지 않고, 조만간 떠나갈 장소였다. 한편 朱天心(1958년 출생)과 苦?(1955년 출생)은 다같이 1960년대 臺灣 경제의 발전기에 성장, 엘비스 프레스리의 음악 등 서양문화에 접촉하면서 성장했다. 臺灣 태생의 신세대의 外省人인 그들이 자라난 시기의 臺灣과, 전쟁 중의 臺灣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었고, 臺灣이라는 그들을 키운 토지에 대한 감정도, 앞의 두 사람과는 크게 달랐다.

朱는 1992년에 〈想我眷村的兄弟們〉를 출판했으나, 이 책은 그녀 자신의 성장과 국가아이덴티티에 대한 심적 변화를 담고 있으며, 자기가 어떻게 하여 外省人们的 전통적인 생각 - 臺灣은 중국의 일부분-에서 臺灣意識을 축적한 사고로 변해갔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苦?은 1988년에 단편소설을 모아 〈外省故鄉〉을 출판했다. 고향, 그것은 가족의 초원이며, 어떤 인물이 태어나 성장한 장소이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의 성장과정의 기억을 더듬고, 또 그 사람이 뿌리를 내린 장소이다. 책이름을 봤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外省人的 고향이란 적어도 臺灣 이외를 지칭, 각자가 자라온 중국 본토의 어느 지역이라고 파악한다. 이것이 가장 솔직한 해석이지 않을까. 그러나, 이 책은 다른 각도에서의 해석도 가능하다. 臺灣 본토에서 자란 사람은 臺灣에 건너온 사람들을 外省人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臺灣 이외에 있는 중국 본토의 각 성에서 건너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外省人们 측에서 보면, 臺灣도 하나의 '外省'으로, 그들이 자란 省과는 다른 省이다. 즉 臺灣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출신 省 바깥에 있는 고향이다. 그들이 臺灣에 온 후, 어떤 사람은 거기에 정착, 臺湾이라는 토지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臺灣에서 가정을 이룬 적은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다시 對岸으로 돌아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臺湾은 '外省人的 공동의 고향'과 같은 것이 아닐까.

3. 분석이론의 해석 미해결의 테마

1) 에스닉 그룹이라는 분석개념

필자가 가끔 학자들이 臺湾의 에스닉 그룹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원주민을 제외한 전체 臺湾人들을 모두 '漢人'으로 부르고 있음을 본다. 소위 독립된 '에스닉 그룹'이 아니라, '서브 에스닉 그룹'이 있을 뿐으로, 外省人们은 서브 에스닉 그룹으로, 臺湾人

들도 그렇다는 것이다. 확실히 근년 에스닉 아이덴티티에 ‘서브에스닉 그룹’을 추가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만약 外省人과 그 밖의 臺灣人 모두 漢人的 서브 에스닉 그룹이라고 한다면, 1980년대 후반에 일어난 건국운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또 건국운동은 도대체 어떻게 하여 출현한 것이었을까.

확실한 것은 서브 에스닉 그룹 이론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에스닉그룹’도 ‘하나의 상상된 라벨’ (an imagined ethnic label)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도구이기는 하나, 그것과 현실이 전혀 무관계한 것은 아니다. 단지, 이론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만약 서브 에스닉 그룹의 논점을 가지고 에스닉 그룹의 현상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고를 경직화시킬 뿐 아니라, 더욱 에스닉 그룹 연구를 정체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필자는 에스닉 그룹을 그 크기를 가지고 정의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커다란 에스닉 그룹을 ‘민족’이라고 부르고, 적은 것을 ‘부족’이라고 정의하는 방법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만약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 관념을 어떤 종류의 사회구조, 혹은 다른 에스닉 그룹과의 사이에 있는 차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일종의 경계구분이라고 해석한다면, 인구 수 혹은 영토의 크기로 에스닉 그룹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이미 존재할 수 없을 것이며, 에스닉 그룹은 대소나 영토의 유무에 상관없이 형성되는 것이다.

나에게는 漢人을 하나의 에스닉 그룹이라고 봄과 동시에, 漢人인 外省人을 또 하나의 에스닉 그룹로 보는 것에 모순은 없다. 그것은 단지 보는 입장을 달리하여 다른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에스닉 그룹이라고 하는 말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상황에 대응한 이론의 실천인 것이다. 서브 에스닉 그룹의 분석은 실제로 실용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예컨대, 18,9세기의 臺灣에서의 분류기제에 서브 에스닉 그룹의 개념을 적용해 보자. ?南人の 하위는 泉州 및 ?(삼수면)州의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지고, 泉州는 下郊, 三邑으로 나뉘지고, ?(삼수면)州는 또다시 同安, 安溪의 두 가지의 서브 에스닉 그룹으로 나뉘진다. 또 三邑은 晉江, 南安, 惠安이라는 서브 에스닉 그룹으로 나뉘진다. 이렇듯 에스닉 그룹의 하부에는 몇 층으로나 더욱 세분화 되고 분기되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한집 한집씩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최후의 이 한집 한집을 누가 서브 서브 서브 에스닉 그룹이라고 인식할 것인가.

이렇듯 서브 에스닉 그룹의 적용에는 의미가 없다. 에스닉 그룹의 병존에는 모순이 되는 점은 없고, 원주민을 예로 들면, 아미족, 다이알 족 등은 별개의 에스닉 그룹이며, 각 에스닉 그룹은 모두 漢人과 상대하는 하나의 원주민 에스닉 그룹이 된다. 현재 ‘新臺灣人’의

이론에서는 對岸과 대치하는 모든 臺灣 사람들은 臺灣의 새로운 에스닉 그룹이 된다. 이렇듯 에스닉 그룹의 병존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는 것이다. 에스닉 아이덴티티를 논할 경우, 에스닉 그룹과 서브 에스닉 그룹의 문제로 명확히 병렬시키는 것은 잘못이며, 다른 관점에서 상황에 따라 해석해 가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2) 아이덴티티의 본질이란

外省人の '아이덴티티=認同'에 대해, 이미 나는 왜 동사의 '認同 (identification)'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말했다. (명사로서의) 認同 '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아이덴티티는 형용할 수 있으며, 자기에 속하는 소유물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필자는 外省人の 아이덴티티파케이션을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나, 外省人の 아이덴티티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때문에 여기서는 外省人の 국가아이덴티티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外省人은 어떻게 하여 국가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고 있는가(national identification)라를 문제삼고 싶다. 필자의 앙케이트 조사의 문제 설정은 그들에게 국가 아이덴티티에 대해 설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가에 어떻게 하여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필자는 外省人인 무엇인가라는 연구가 아니라, 무엇이 '外省人 다음 '을 만들고 있는가를 이해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서의 논점은 중국과 臺灣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공동체에 대한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특히 臺灣은 근년 국가아이덴티티의 논의가 가열화하고 있으며, 특히 이 문제의 중요성이 명확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外省人은 어떤 중국에 아이덴티티를 두고 있는 가를 하는 것이다. 外省人の 입장에서 보면, 臺灣을 가장 사랑하는 중국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자기들이 먹기에는 내끼지 않으나,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중국인 것인가. 이미 臺灣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중국인 것인가. 혹은 모순 없이 동시에 다원화한 국가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즉 상상 속에 있는 조국인 중국, 현실생활 속의 조국인 臺灣에 대해서 동시에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일 가. 이러한 다원화한 국가아이덴티티 속에서, 중국 혹은 臺灣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일이다.

3) 왜 사람들은 국가에 아이덴티티를 부여 하는가

최근 미국의 국제관계학자, William Bloom은 민의와 외교정책결정의 관계를 분석한 책을 펴냈다. 그는 아이덴티티 형성의 뿌리는 안심감을 얻고 싶다고 하는 인류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국가아이덴티티를 정의하면서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개인은 스스로의 사회에 존재하는 중요 인물의 행동, 습관, 태도를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 공감을 가지고 - 태생적인 동인을 가지고 있다. 즉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아이덴티티를 찾아내려고 한다. – 국가아이덴티티는 대중들이 국가적 심볼에 같은 귀속의식을 가지고 - 그것을 스스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 상황을 말한다. 이 때문에 대중들은 이를 심볼이 위협받거나, 선양되거나 할 때, 하나의 심리적 집단으로서 행동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의 관점은 국가아이덴티티는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이다. 국가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스이며, 국가아이덴티티란 하나의 결과다. 국가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한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과정이란 일종의 진행 중의 상태다. 따라서 그 결과도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外省人の 국가아이덴티티의 좌표축은 서서히 성립하는 것으로, 불변의 존재는 아니다. 즉 정치와 사회의 움직임에 의해 변동하고 있는 것이다. 外省人이 스스로 인용하고 있는 아이덴티티의 경계도 동일하게 변화한다. 이 경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外省人の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外省人の 정신세계

臺灣의 정치질서의 본토화에 대한 外省人们的 입장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外省人们的 정신세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1949년, 이를 중국으로부터의 방출자들은 국민당 정부를 지지, 당을 위해 희생하고, 또 당시 국민당 정부가 행하고 있던, 지금은 대중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을 묵인하는 이유와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만약 臺灣으로 건너온 국민당 정부가 臺灣에서 다시 실패했을 때는 外省人们도 같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Alan Wach는 국민당과 국가통일의 목표를 지지하고 있는 外省人们은 어떤 종류의 ‘경건함’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희생을 바치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

다. 제1세대의 外省人们은 고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臺灣의 언어를 사용하는 臺灣人们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더욱 臺灣人们 모두는, 外省人们과 2.28사건의 책임을 지는 정당과를 동일시 해왔다. 臺灣人们은 국민당 정부가 臺灣으로 옮겨왔다고 하는 것도, 外省人们이 정권이나 교육 등 다방면에서 특별한 지위를 점해온 것도 납득하려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臺灣人들은 外省人들을 배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제1세대의 外省人들은 언제나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들은 공산당과의 교전에서 철수해서 살아남은 것이다. 반드시 강력한 정부와 위대한 지도자 아래서, 반공귀환 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왔다. 이것은 外省人들의 정신세계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신념이나, 바로 이러한 신념이 그들이 1990년대 이후에 일어난 臺灣의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한 적응을 곤란하게 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수십 년 이래, 많은 外省人들은 늘 臺灣은 중국의 것이라고 강조해 왔으나, 필자는 이것은 다소 자신들을 기만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고 의심하고 있다. 그들은 과연 臺灣의 역사와 아이덴티티가 다원화하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던 것인가. 적어도 교육을 받지 않았던 늙은 퇴역군인들은 마음속으로부터 臺灣은 中國이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지식인들은 어떠했을까. 나는 “臺灣은 中國의 일부다”라는 이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外省人들이 스스로를 위로키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 고향에 돌아갈 방법이 없음을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라고 본다.

5) 外省人은 아직 흑백영화의 배우인가

1990년대, 李登輝가 총통이 된 이래 臺灣의 정치체제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냈다. 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받아드리는 정도에는 臺灣의 제1세대 및 제2세대의 外省人들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 두 세대의 차이는, 臺灣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도에 의해 정해졌다.

臺灣의 外省人의 역사를 연구하면 두 가지의 현상을 간파할 수 있다. 하나는 그들은 단일의 에스닉 그룹을 형성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들의 臺灣化, 土着化다. 이 두 가지 현상의 발생은 크게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나, 순서는 있다. 즉 먼저 아이덴티티의 형성이 있고, 그 다음 臺灣화, 土着화의 시작이 있다. 그런, 두 가지 현상 사이에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이덴티티의 형성에 대해서 臺灣化, 土着화의 현상에는 그것을 보완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外省人의 아이덴티티 형성의 복잡성을 증폭하기라고 하듯, 두 현상은 일종의 경쟁관계를 만들어 낸다.

臺灣化, 土着化 현상의 명확한 예로서, 外省人들이 현재 말하는 국어(중국어)와 30년 전의 그들의 말은 이미 전혀 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많은 外省人들이 지금까지 ?南語을 사용하면서 臺灣人들과 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臺灣化한 국어의 영향을 수용하고 있다. 그들의 대화에서, 얼마간의 ?南語가 혼재되어 있음을 간혹 들을 수도 있

으나, 대체로는 소위 ‘臺灣國語’의 발음을 사용하여 말하고 있음을 본다. 결국 臺灣에 살기 시작한지 50년이 되는 外省人들은 이 50년 사이에 對岸과의 모든 연결을 단절했으며, 外省人の 臺灣化라고 하는 현상은 아주 당연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外省人들의 臺灣化현상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그것은 外省人們의 아이덴티티는 결국 어떤 국가에 있는가 하는 문제다. 外省人们的 ‘中國’에 대한 정의는 아주 일찍부터 사람들에 따라 다르다. 특히 그들의 다원화한 국가아이덴티티라고 하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은 진지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外省人们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것은 어떤 중국인가. 그들은 臺灣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지 않는 것인가. 부여한다면, 그것은 어떤 臺灣人 것인가. 만약 臺灣이 중국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만다면, 그들은 계속 臺灣에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外省人们은 다원화한 국가아이덴티티의 연구대상으로 최적이다. 外省人们的 다원화한 그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함과 동시에, 이 다원화는 外省人们的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불안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그 불안은 자각적인 것인가. 外省人们的 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말한다면, 제기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대단히 많다. 그들은 어떤 국가에 아이덴티티를 두고 있는 것인가. 어떤 정체인 것인가. 만약 그들에게 국가아이덴티티의 다원화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 다원화란 어떤 면이 많고, 어떤 면이 작은가, 균형 있게 나눠져 있는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과 같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하며, 많은 사람들은 왜 지금까지 外省人们的 국가아이덴티티 문제를 깊이 있게 추구하는 연구자가가 적었던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外省人们的 국가아이덴티티의 다원화는 정치화하여 표면화하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모순과 국가에 대한 충성의 문제가 동일하게 묘사되기도 한다. 중국에 대한 外省人们的 감정은 아주 난해하다. 더러는 臺灣을 위협하여 전체 臺灣人들을 겁먹게 하는 중국, 대부분의 外省人们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런 한편, 外省人们은 중국을 그들의 조국으로 보아왔다 - 필자는, 그들이 조국이라고 부르는 중국은, ‘관념적’인 중국, 혹은 상상속의 중국이긴 하나, 이것은 교육을 통해, 역사나 문학 교수들이 전해온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중국이며, 현재의 행정과 정치 면에서 공상적 가치관을 보유하는 中華人民共和國은 아니다. 外省人们的 이러한 취급 곤란한 국가에 대항 애증은 그들 스스로를 곤혹하게 할 뿐 아니라, 臺灣人들 또한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